

13. 백삼산지에서 인삼작황과 수량과의 관계

박훈 이명구 변정수 이종률

풍기와 금산지방의 4년근 인삼수량을 경종방법 및 지상부생육상황과 관련 조사하였다.

수량은 결주율에 영향을 받으나 ($p = 0.05$) 재식주수와는 무관하였다. 밀식하는 금산지역에서는 수량이 채굴주수에 의존하였으며 ($p = 0.01$) 소식하는 풍기에서는 수량이 개체근중에 의존하였다. ($p = 0.001$) 채굴주수는 결주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($p = 0.05$) 밀식지역에서는 재식주수와 관계가 없었다. 동일지역내에서 개체근중은 재식주수 채굴주수, 또는 결주율과 무관하였다. 수량은 중기 엽면적지수에 의존하였으며 ($p = 0.001$) 수확기의 엽면적지수와도 비례하였다. ($p = 0.01$) 낙엽주율이 클수록 수량이 적었는데 ($p = 0.05$) 낙엽주율에의 영향이 금산에서 컸다.

엽면적지수는 주상엽면적과 ($p = 0.01$) 주수 ($p = 0.05$)에 의존하나 주당엽면적에 의존도가 컸다. 주당엽면적은 근중에 크게 의존하였다. ($p = 0.001$) 수량은 소식지역에서만 경장에 비례하였다. 주상엽면적은 경장과 소식지역에서 ($p = 0.001$) 밀식지역 ($p = 0.05$)보다 더높은 비례관계를 보였다. 재작회수는 수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것으로 보였으며 3차작에서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고 낙엽율이 적은것이 특징이었다.